

눈물의 섬, 이별의 부두

사할린 김경순(사할린한국교육원)

제 이름은 김 경순입니다. 저는 1949년 사할린에서 태어났어요. 제 부모님의 고향은 한국 충북 청주시 입니다.

옛날 제2차 세계대전 때 부모님이 사할린으로 징용 끌려 왔어요. 그때 부모님은 아들을 한국에 놔 두고 오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은 한 2~3년 지나면 고향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사할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별이 50년이 넘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945년 전쟁이 끝나자 길이 영영 막혔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고향을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 했습니다. 그건 더군다나 어린 아들을 한국에 놔두고 와서 더더욱 그리웠던 것이지요.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그건 한국에 두고 온 어린 아들이 눈에 가슴에 사무쳤으니까요...

이렇게 큰 오빠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남았고 우리 5남매는 사할린에서 태어나 사할린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린시절에 어머니, 아버님이 옆에 계셨다는 것 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든든하니까요... 어머니, 아버님은 열심히 노력하시며 우리들이 다칠까, 텔까, 무거울까, 아플까 병아리처럼 감싸 키웠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컸습니다. 결국은 큰 오빠만 불쌍하게 컸던 것이지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국 방문 했을 때, 한 2013~15년경에 큰 오빠가 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을 아주 고생스럽게, 서럽게, 가난 속에서 어머니도, 아버님도 없이 천덕구리로 슬프게 살았지...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 옛날에 배전에서 어머니가 ‘날 따라 가자’ 하실때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따라 간다는 말을 못했어... ”

“배전에서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 배가 어머니를 태우고 부~~~하고 고동치며 떠나가자 갑자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걸, 무서운 할아버지만 있다는걸, 그제서야 비

로서 내가 혼자라는 걸 느끼고, 배 떠난 부두에서 떠나가는 배를, 떠나가는 어머니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어...8살된 어린 내가 통곡하며 목놓아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생생해..." 하며 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별이 50년이란 세월이 흘러 갈 줄은 상상도 못 했지. 오래도록 부모님 소식이 없어서 난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어. 어머니, 아버지란 그 두 단어를 얼마나 부르고 싶었는 몰라... 아버지란 말을 한번도 불러 보지 못했어... 한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적이 없었어...

아버님이 첫 새벽에 나가시고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 오시니깐, 내가 항상 자고 있을 때라서, 나의 얼굴만 보시고 그러셨지..." 라고 하시며 또 우셨어요.

“6.25전쟁 때 산으로 피난 갔는데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 혼자 산에 남아 있었어. 비행기가 살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총으로 쏘아 죽이니 나는 죽은 듯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 캄캄하게 날이 저물어서야 비행기들이 다 날아 갔어. 다 날아간 뒤에 살살 일어나서 손으로 더듬 더듬하니 온 사방이 죽은 시체 뿐이었어. 발은 총알에 부상을 입어서 걷지도 잘 못 했고 또 무섭기도 했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 캄캄한 산속을 기어서 기어서 여기 저기 헤매이다 밤이 지나고 새벽에 겨우 마을로 내려 왔지..."

큰 오빠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절로 났어요. 어머니가 옆에 계셨더라면 고생을 적게 했을텐데, 큰 오빠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불쌍했지요...

어머님은 사할린에서 사시면서 큰 아들 생각, 큰 아들 걱정을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우리가 5남매나 있는 데도 큰 오빠 걱정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살겠지..." 한탄하시면서. “6.25전쟁 때 죽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용한 점쟁이란 점쟁이는 다 찾아 다니면서, 혹시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셨습니다.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는 만날수 있겠지... “라며 어머니는 한참씩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그런데 점쟁이들은 하나 같이 모두다 아들은 살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6살~12살 무렵, 겨울에 학교에서 오면 우리들의 젖은 신발을 손으로 만지며 부엌에 따뜻한 자리에 마르라고 올려 놓으시며 항상 말씀하셨지요. “너희들 젖은 신발은 내가 말려 주는데 큰 오빠 신발은 누가 말려줄까? 다 떨어져서 발가락이 송송 나오는 쪼신이라도 누가 말려 줬으면” 이라고 걱정하셨어요.

한 번은 또 이러한 말을 들은 후,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지금 우리 나이가 12살

이 됐는데 큰 오빠 나이는 지금쯤은 한 20세가 됐잖아요?” 라고요. 어머님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 갔어도, 내 아들이 컸어도 나의 눈 앞에는 언제나 작은 아이로만 보인다. 이별하던 때 어린 시절의 아들… 그 모습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5형제는 어머님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 까지 밭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일하셨어요. 억척스럽게 일만 하셨어요. 단 한번도 구경이나, 여행이나, 명절 때 쉬는 날이 없었어요.

1958년~65년도까지 8월15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의 날이라 해서 매년 운동장에서 큰 명절을 쇠었습니다. 씨름도 하고, 그네도 뛰고 달음박질도 하고, 재미있는 놀이가 하루 종일 있었어요. 저의 집이 운동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부모님은 한번도 운동 구경 하러 안 갔어요. 잔치나, 생일이나, 초상 그리고 꼭 인사 해야 할데만 갔어요. 놀러는 절대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놀라서 “어머니가 어떻게 행복해요? 8월 15일 운동 구경도, 비행기도, 기차도 한번 안 타고 여행도 한 번 안한 사람인데요?”

어머님은 “구경하며 놀러 다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자식이 부모 앞에 안 가고, 병신 자식이 없고,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모두 다 건강하게 살며 자식들이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부모 속 안 썩이고, 부모 욕 안 먹이고, 화목하게 사는 게 행복이란다. 큰 아들과의 이별은, 그때 세월이 그래서 그렇지.” 라고 말씀 하셨어요.

둘째 오빠가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어머님께 큰 땅으로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걱정의 표정으로 “절대 멀리 떠나 보내진 못한다. 집 문턱만 나서면 고생인데…, 아서라. 아들하나 고생시키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너희들 만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 날 멀리 떠나질 말거라.” 라고 한사코 안 보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모두다 착해요. 둘째 오빠도 너무 착해서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도 어머님 생각해서, 할수 없이 대학을 포기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평소에 한국의 여러 속담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백지장도 마주 들면 낫다.’ 는 말은 쉬운 일도 도와주면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며, ‘문전 나그네 후한 대접’ 하여 문 밖의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집에 오면 푸짐하게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서로 나눠 먹어야 한다고요.

부자인 사람과 살거나 사귀기는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과 살거나 사귀기는 어려워 하니, 가난하고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을 업수이 대접하지 말라고 하셔지요.

하여튼 부모님은 이러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였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어요. 이웃 사람들이 “너의 부모님은 양반들이니 법이 없어도 사실 만한 분들이다.” 라고 하시며 종종 부모님께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옛날에 사할린 한국사람들이 인도 영화를 모두가 좋아 했어요. 그들의 삶이 우리와 비슷하니까 그랬나 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머님께 재미있는 인도 영화가 왔으니, 같이 가시자고 하니, 어머님은 “조선에서 나의 삶이 인도 영화보다 더 기막힌 삶을 살았다. 나는 안 볼란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니 그 내용이 제 어머님의 삶과 같아서 놀랐습니다. 시부모가 아들을 빼앗고 며느리를 내 쫓는데, 며느리는 울면서 아들을 놔 두고 집을 나섰어요.

그 자리에서 나도 하염없이 울면서, “아차, 내가 어머님을 안 모시고 온 것이 다행이다. 어머님이 봤으면 또 옛날의 아들이 떠 올라서 우셨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또 징용 끌려가신 박노학 아저씨가 육십 몇년도에 일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분은 사할린 한인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 하며 애타게 바라고 사는가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일본으로, 자신 앞으로 편지와 한국 주소를 써서 보내면 한국으로 꼭 보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일본을 걸쳐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일본에 계시는 박노학 아저씨께 한국 주소와 편지를 여러 번 보냈어요. 그래도 한번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들이 6.25 전쟁때 분명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국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 날은 우리 집에 초상집과 같았습니다. 울며 불며 온 식구가 큰 아들이 살아 있다고! 큰 오빠가 살아 있다고 울부짖듯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길이 터질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저희들도 어머님이 그리워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고, 듣고 하니깐 뼈속 깊이 사무친 것 같아요. 어머님이 큰 오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큰 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자주 흘렸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후로 우린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발달되어서 국민들이 잘 산다는 것을 알고 당당해 했으며 자랑스러워했고 또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건 저의 부모님 고향이며, 저도 부모님의 피를 물려 받은 한국인의 자식이니깐요. 또 한국이라는 나라엔 나의 보고 싶은 큰 오빠가 살고 있으니깐요.

그때는 한국에서 누가 오면 그렇게 형제 간처럼 반가웠어요. 큰 오빠가 사는 나라에서 오셨으니깐요. 그 만큼 큰 오빠가 그리웠습니다.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너무 그토록 애타게 보고 싶어하셨고 그리워 하셨으니깐요.

1989년 사할린에서 회의를 하었는데 한국적 적십자사가 한국의 비행기로 사할린의 한인들을 태워서 한국 방문시켜 준다고 했어요. 영화관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좋다며, 환호하며 손뼉을 쳤어요. 그러나 저만은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혼자 쏟아 지더군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심장병으로 벌써 한 5년째 아무: 외출도 못 하시던 때 였으니깐요.

방안에서만 살살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걸어 다니실 때는 철벽이 가로 막혀 못 가고, 지금은 철벽이 터져 고향가서 아들을 만나보고 구경도 하시라 하는데도 병에 걸려 못 가시니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요. 눈물이 나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이야기를 어머니께 하니 어머니는 못 간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이웃의 먼저 다녀 오신 분이, 한국 가시면 휠체어를 태워서 나가니 갔다 오시라고 했어요. 50년이란 긴 세월을 아들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 하겠냐고요. 그래서 죽는 셈 치고 어머니는 고향 방문 하기로 마음 먹고 아버지께 “내가 가다가 죽으면 아들에게는 내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젊어서 이별하고 이 지경이 돼서 아들 앞에 나타나기가 싫어요. 항상 젊은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세요...”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990년에 대한 적십자가 부모님께 한국 방문을 시켜 주었어요. 큰 오빠가, 한국 비행장으로, 온 가족과 같이 마중 나왔어요. ‘아버님 - 김종학, 어머니 - 강화금 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비행기에서 손님들이 모두다 나와서 울며 불며며 난리 법석인데 큰 오빠에겐 누구도 다가 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어도 부모님이 나오시질 않았대요. 그러니 큰 오빠는 사방을 두리번 거리며 생각했다고 해요. “혹시 전화를 잘 못 받았나? 다른 사람인데 착각을 한 건 아닌가?”

그때 저 멀리서 하얀 백발머리 할머니 한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걸 보면서 큰 오빠 생각 했대고 해요. ‘저 할머니는 누굴 만나기에 이 나이에 비행기를 타고 또

휠체어까지 타면서 여기까지 오시지?’ 그런데 그 휠체어가 큰 오빠가 서 있는 곳으로 오자 비로서 어머님인 줄, 아버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아들은 어머님을 서로가 못 알아 본 것입니다. 큰 오빠가 어머님 곁으로 다가가 “어머님” 하고 부르니, 어머님은 “이게 누구여?” 하며 큰 아들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벌써 앞을 잘 못 보셨기 때문입니다.

50년만에 병투성이가 되신 어머님과 아들과의 상봉!!!!...

그 얼마나 기 막힌 일입니까?. 큰 오빠 비행장에서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문에도 나왔어요.

제목은 [50년 만에 부모님과 아들의 상봉]

우리 부모님 다음에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그 신문을 저의 집에 가져 왔어요. 부모님은 큰 아들 집에서 평생 처음으로 온 가족 모두와 한국 구경도 하며 재미있게 한 달을 보냈어요. 큰 오빠 한국에서 부모 없이 혼자서 훌륭히 커서 학교 선생님이로 일하고 있었어요. 큰 오빠 50년 만에 부모님과 고향에서 만났다고 큰 잔치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친척 분들, 아는 이웃들 모두를 초대했데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었지요. 부모님은 또 사랑하는 큰 아들과 이별해야 했으며, 그리운 고향 땅을 등지고 와야 했으니깐요.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한국에서 아들과 식구들과 작별하고 3시간 30분 비행기를 타니 사할린 땅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면 되는데, 50년이란 길고 긴 세월이 흘러 서야 서로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생이별이 또 왜 말인가요.

아버님은 돌아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비행기도 평생 처음 타 보고요.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버님 손을 꼭 잡으시며, 참 아드님 훌륭하게 잘 키우셨다고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큰 벼슬을 하고 온 것 같다며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큰 오빠 30년간 성실히 근무하셨다고 국무 총리상을 받았고 그 왜에도 여러 표창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할린으로 돌아 오신 지 두달 후에 어머님께서 세상을 뜨셨어요.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 한번이라도 고향 땅을 밟아 보시고, 아들과 만나 보신 것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머님과 같이 일만 하시던 아버님이시었는데 어머님이 돌아 가시니 너무나 쓸쓸해 하셨어요. 부모님은 금슬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버님께 놀러 가시라 해도 안가시고 여름엔 터밭어서 일하시고, 겨울엔 글쓰시며 책을 읽으셨었어요. 그러시다 병에 걸려 끝내 고향으로 영주귀국도 못 하신채 세상을 뜨셨어요. 저는 한국의 큰 오빠와 조카들과는 종종 만났습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저는 설원화 선생님께서부터 한국어도 더 배우고, 한국 노래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 배우는 도중에 부모님에 대한 가사가 머리에 떠올라서, 글을 적어서 이병일 원장님께 보여 드렸더니, 원장님이 노래를 불러 줬어요. 너무 슬프게 모두들 다 잘 들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우리에게 1주일에 두번씩 춤을 열심히 배워 줍니다. 참 재미있는 시간이예요.

노래도 잘 부르셔서 춤도 덩실 덩실 잘 춥니다. 러시아에서 많이 추는 춤인 왈츠를 한국분인 원장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러우면서 감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글 써 보라고 저에게 용기를 줘서 이렇게 써 봅니다.

원장님은 우리와 공원에서 춤 연습을 종종 합니다. 처음으로 공원에서 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스키장 산 정상 위에서 재미있게 춤을 연습했어요. 그 누가 우리에게 공원이냐 밖에서 춤 추자가 하겠어요?

이병일 원장님이 우리 사할린에 오셨기에 70살이 넘는 우리들이 공원에서, 밖에서 재미있게 춤 추고 있습니다.

제가 쓴 노래 가사 두 곡을 한국의 조카에게 보냈더니, 조카가 하는 말이 “가사 한 줄이 한 줄이 가슴에 쓰라리게 와 닫고, 이 노래를 듣는 아버지의 눈물 글썽한 모습이 선하게 보여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카들은 아버님이 너무 불쌍하시고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큰 오빠는 2021년도에 세상을 뜨셨어요. 노래를 조금 일찍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 노래를 썼어요.

노래말을 써서 원장님 보낸 것을 원장님이 조금 수정해서 부르신 노래 가사입니다.

조용필 가수의 ‘그 겨울의 찻집’ 이라는 곡에 맞추어 부른 노래 [눈물의 섬, 사할린]입니다.

사할린으로 끌려 왔어요 조선 땅에서 그 옛날
일본놈들의 시달림 받고 늘 패로움에 떨었죠
가고픈 고향 한국 땅으로 부모형제 사는 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리워라 내 고향

사모친 한을 풀어 주세요 하루속히 날아 가고파

그늘진 세월, 고향 그리며 철천지 한이 됐네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꿈에서 본 내 고향

다음은 주병선 가수의 ‘칠갑산’이라는 노래에 맞춘 [이별의 부두]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부모 잃은 어린 마음을, 그 누가 알아 주리오

외로웁고 서럽던 아픔, 누구에게 원망주리오

어머니는 내게 같이 떠나자, 애답게 속삭이셨지만

할아버지 무서워 끝내, 따라 간다는 말을 못했소

(간주)아-어머니 어딜가셨소. 그 손 잡고 같이 갈 것을, 그랬소, 그랬소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난 날 배 떠난 부두에 나가

하염없이 목놓아 울었다오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원장님도 이 곡을 불러 보다가 목이 메고 눈물이 앞으로 가려 처음에는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비디오를 보다보면 목이 메어 떨리고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민속춤 수업을 가가린 공원과 아리랑 공원에서 두차례 하면서, 이 두 노래를 마이크를 들고 불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는데, 어머니, 아버지, 큰 오빠가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과 혈육과의 이별이 없는 삶이 행복하게 지속되고, 불행한 이별의 슬

품을 가진 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